

이천쌀 '독립선언' 합니다...이젠 우리품종 '해들·알찬미'



“우리 쌀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해들’과 ‘알찬미’ 만세!”

임태준 이천시장이 2019년 2월20일 호법면 모내기 현장에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임금님표 이천쌀은 완전 우리 품종입니다”라며 이천쌀 독립 원년을 선포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쁨의 만세 삼창을 외치며 한 말이다.

예로부터 쌀은 결실과 풍요의 상징으로 불리며 중요한 곡식으로 대접받았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했는지 쌀은 양식을 넘어 화폐로 통용되며 물물교환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쌀은 더없이 귀중한 식량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우리에게 소중한 양식이자 상징으로 자리해온 쌀이지만 그동안 우리 밥상을 점령하고 있던 것은 주로 일본에서 넘어온 외래 품종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를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쌀’조차 대부분 일본 품종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이에 이천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외래 품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리 품종으로의 독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일본품종에 잠식된 국내 최고 이천 쌀의 변신

이천 쌀은 옛날부터 임금님께 진상했던 전국 최고 품질의 쌀 생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조선 성종 실록에 보면 1490년 성종 임금이 세종대왕릉에 성묘 후 환궁할 때 이천에 머물던 중 이천 쌀로 지은 밥을 진상했다는 기록과 1825년 간행된 조선시대 농서 행포지에 이천에서 생산한 쌀이 좋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맛과 품질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이천지역은 삶에 이로운 물이 많은 고장으로 분지형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 외부 오염 유입이 없는 고장이며 일조량과 일조시간이 많아 완전미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맛있는 쌀 생산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임금님표 이천 쌀은 추청(아기바레·만생종), 고시히카리(조생종) 등 일본 품종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임태준 시장은 2018년 이천 쌀 독립 원년을 선포하고 2022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일본 품종이 잠식하고 있는 우리 쌀 시장의 독립을 꿈꾸며 개발·보급된 우리 벼, 우리 품종인 ‘해들’ (조생종)과 ‘알찬미’ (중생종)다.

◇이천시 특화 맞춤형 벼 품종 개발에 성공

‘해들’과 ‘알찬미’의 개발은 밥맛 좋은 국내 육성품종으로 교체 위한 이천시의 오랜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로 성장한 ‘임금님표 이천쌀’의 외래



평가단이 지난해 수확한 알찬미의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품종 사용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며 이를 대체할 우수한 우리 품종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다.

하지만 우리 국인 입맛에 익숙하고 품질 또한 우수한 일본 품종을 대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천시는 국내 육성품종 개발을 위해 2016년 4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와 ‘이천벼 품종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고 ‘이천시 특화 맞춤형 품종 개발’에 착수해 이천시의 숙원사업인 국내육성품종 대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수요자 참여 벼 품종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포장 평가, 품질 평가, 밥맛 평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노력한 끝에 2017년 조생종 ‘해들’과 2018년 중생종 ‘알찬미’ 개발에 성공, 2018년 ‘해들’과 2019년 ‘알찬미’를 출원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

◇‘해들’과 ‘알찬미’, 각종 평가에서 일본품종 압도

‘해들’은 기존 조생종인 고시히카리에 비해 쓰러짐과 병해에 강하고 쌀 수량은 조기재배 기준으로 10a당 564kg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우수성을 가진 품종이다.

밥맛은 조생종이지만 중만생종 수준으로 극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에서 소비자 평가단을 통해 식미검정을 한 결과 평가단의 48%가 ‘해들’의 밥맛을 최고로 평가했다. 반면 함께 테스트받은 고시히카리는 29%에 그쳤다.

이처럼 이천시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첫 국산 품종 ‘해들’은 밥맛과 수확량 등의 재배 안정성이 우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으로 외래 품종을 능가하는

품질로 평가받았다.

또 ‘알찬미’는 현재 밥맛이 뛰어나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 벼 품종인 ‘추청’ (아기바레)이지만 이를 뛰어넘는 맛으로 국산 벼 품종의 독립을 앞당긴 우리 품종이다. ‘알찬미’는 중만생종인 ‘추청’보다 쓰러짐에 매우 강하고 쌀알은 심복백이 없어 맑고 깨끗하다. 극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알찬미’의 밥맛은 중생종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일품이다.

특히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소비자 평가단이 식미 검정을 한 결과 45%가 ‘알찬미’의 밥맛이 좋다고 꼽아 2%를 차지한 ‘추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밥맛과 병 저항성 등의 재배 안정성이 우수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품종으로 이천 관내 벼 재배에서 외래 품종을 대체할 최적의 벼 품종으로 꼽히고 있다.

◇2022년이면 임금님표 이천 쌀의 종자독립 마무리

이천시는 2019년 1월 고품질 ‘해들’ 생산 시범단지인 신둔, 호법, 마장 3개 농협과 이천 남부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운영해 9월 마장면 이평리를 시작으로 총 131ha에서 550t의 해들을 수확했다. 이와 함께 수확한 ‘해들’은 임금님표 이천쌀 ‘해들’이란 이름으로 판매했으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썼다.

또 2020년에는 ‘해들’ 명품 쌀 단지 1020ha와 중생종인 ‘알찬미’ 시범재배 단지 947ha 조성 등 농협과의 총 계약재배면적 7천500ha 중 26%를 ‘해들’과 ‘알찬미’로 대체했으며 재배면적을 순차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이면 이천시 총 계약재배면적 7500ha는 전

일본품종 ‘임금님표 이천쌀’ 우리품종으로 새출발 ‘해들·알찬미’ 밥 맛 최고 평가...병 저항성도 우수 “내년까지 이천쌀 100% 우리품종으로 대체할 것”



지난해 7월 이천시 호법면 하우수 시범단지에서 해들 품종 벼 첫 수확.

부에서 일본 벼 품종이 퇴출되고 국내 품종인 ‘해들’과 ‘알찬미’로 대체된 이천 쌀 독립이 실현된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2022년까지 국내육성품종 ‘해들’과 ‘알찬미’가 이천시 계약재배면적 전체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원료곡으로 100% 대체되면 이천 쌀의 완전 독립이 실현된다”며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인 ‘해들’과 ‘알찬미’가 대한민국의 쌀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서인범 기자



지난해 출시된 우리 품종의 임금님표 이천쌀 해들과 알찬미.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